

# 인터넷 주소관리 정책방향

김광수 / 정보통신부 초고속망기획과 사무관

세계 인터넷이용자수는 '97년말 현재 약1억명에 이르며, 도메인이름수는 '98년말 현재 520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r 국가부호최상위도메인(ccTLD)도 '95년 이래 연간 260%씩 증가하여 '98년말 현재 24천여개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인터넷주소는 전자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사업 등 인터넷을 통한 활동영역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지하기 쉬운 주소를 확보하기 위한 분쟁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동안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를 통해 세계인터넷 주소관리를 주도해온 미국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계인터넷 주소관리체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세계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국제기구(ICANN)를 설립하여 현재 기능 이양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정통부에서는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의 다양한 인터넷 주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 관리조직 개편, 및 도메인이름 관리업무 개선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주소 정책방향을 정립중에 있다.

이번 개편방안에 가장 핵심내용은 국내 인터넷주소

관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새로운 비영리법인은 기존에 인터넷 주소관리를 전담해온 한국전산원(KRNIC)으로부터 상용부문의 인터넷주소관리기능을 이양받아 '99. 9월부터 상용도메인 할당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관의 경우 연간 3만원, 개인의 경우 연간 1~2만원의 등록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도메인이름 체계를 개선하여 2단계 도메인에 .pe.kr을 추가하여 개인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초·중등고교를 위한 2단계 도메인을 생성하며, 기관의 경우 현재 1개의 도메인 등록만 가능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복수개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온 도메인 분쟁을 기존의 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쟁 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고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인터넷주소 관리체제가 인터넷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체계를 정립하는데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